

# 한-미 FTA 시한 연장되나

## 백악관, 7월1일 종료 '신속무역협상권' 갱신 요청 연장 안되면 이후 협상 조건 의회가 뒤집을 수도

미 백악관이 오는 7월1일 종료되는 신속무역협상권(TPA)의 갱신을 29일 의회에 요청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TPA란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에 관한 협상 권을 부여한 뒤 협상 합의문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팀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가 7월 1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해 3월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이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농산물 분야를 비롯해 무역구제, 섬유, 자동차, 의약품 등 많은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정적인 협상결과를 마련하지 않는 한 협상데드라인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의회에 TPA 갱신을 요청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6개월 전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협상을 마무리하고 한국 및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끝내기 위해 TPA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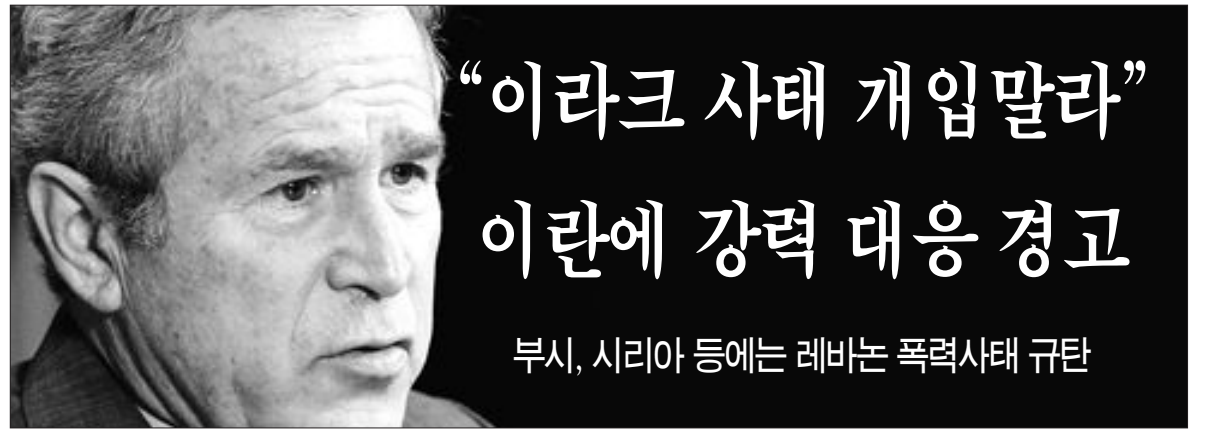
그러나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 현재 미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의회가 과연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내 많은 의원들이 FTA를 반대하거나 부시 행정부가 더 엄격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의회로 하여금 TPA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TPA가 갱신돼 한미 FTA 협상시한이 연장되더라도 FTA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속단도 금물이다.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민주당은 TPA를 갱신하는 조건으로 과거에 요구했다가 공화당에 의해 묵살됐던 노동·환경관련 규제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분야 보상문제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FTA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FTA 협상시한이 연장될 경우 한미 양국 모두 대선일정에 근접하게 돼 협상내용이 정치적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이라크 사태 개입말라” 이란에 강력 대응 경고

부시, 시리아 등에는 레바논 폭력사태 규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 이란의 이라크 사태 개입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이란이 우리 군대나 무고한 이라크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이라크 내 군사행동을 강화한다면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걸프지역에 항공모함을 증파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더 체니 부통령도 앞서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항공모함 증파 등이 이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가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입장을 고수

하면서도 걸프지역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적 대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토니 스톤 백악관 대변인은 향후 사태를 주시할 것이라며, 이란이 현재의 건설적이지 못한 역할을 보다 건설적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최근의 레바논 폭력 사태를 비난하면서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 등은 레바논을 불안정하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레바논의 합법적 지도자들과 친구들이 파리에 모여 레바논의 평화롭고 발전적인 미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시점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더욱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부시 '퇴임 카운트다운 시계' 인기

진보 성향의 60대 서적상이 제작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퇴임 날짜를 세는 '부시 카운트다운 시계'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크루즈에서 '샌타크루즈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닐 쿠너너티(60)씨와 현재 샌타크루즈 시의원으로 활약중인 아들 라이언과 딸 케이시.

예전부터 좌익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았던 곳으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쿠너너티씨 일가쪽은 키홀더를 겸한 명랑 크기의 시계를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3만 개 가량 팔았다.

이 시계에는 부시의 사진과 함께 “우리 나라의 악몽이 머잖아 끝난다(Our national nightmare will soon



be over)”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시계는 인터넷(<http://www.nationalnightmare.com>)과 서점, 기념품 가게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개당 판매가격이 온라인에서는 9.95 달러, 상점 등에서는 11.98 달러에 각각 팔린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 작년 北 미사일 발사는 利美 행위?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온 미사일방어망(MD)을 위해 절호의 리허설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미국은 여기서 얻은 지식과 시험자료를 통해 적대 미사일에 대한 실전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으므로 북한이 미국의 MD 개발 일정을 크게 축진한 결과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미사일방어국(MDA)의 패트릭 오라일리 방위장관은 29일 지난해 7월4일 북한의 미사

미사일 비행시험을 성공시켰고, 이어 지난 26일 15차례의 요격시험을 실시, 14차례를 성공시켰다.

오라일리 부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작전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거기서 수집된 자료를 노동절 요격 시험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북, 미에 리허설 기회 제공=오라일리 부국장은 미국이 지난해 여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느라 MD를 “꽤 오랜 기간 가동해 그 결과 엄청난 양을



## “체코에 미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 안된다”

체코 시민들이 29일(현지시간) 프라하의 벤체슬라스 광장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 레이더 시스템의 체코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란 및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상을 체코 및 폴란드와 곧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AFP=연합뉴스

## 美 방위국 “엄청난 자료 얻었다”

### “연내 北·중등 위험 보호막 완성”

일 시험발사 때 미국이 MD를 전면가동한 사실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2차례 미사일 요격시험의 성공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까지 “북한과 중동(이란 의미) 양측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따른 요격시험 성공=북한이 지난해 7월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 ‘폭죽’을 터뜨린 2개월 후인 노동절(9월2일) 때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상정한 요격

습득”했고, 첫 가동 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MD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 미사일 능력=오라일리 부국장은 1972년만 해도 8개이던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현재는 20여개에 이르며, 지난 수년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탄도 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 시험도 130회에 이르렀다며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6개월내 100만명 바그다드 탈출 가능성”

### 美 국제의료단 경고

종파 간 폭력사태로 작년에 50만명 이상이 바그다드를 탈출했으며 이대로 가면 올 중반까지 100만명 이상이 추가로 바그다드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 자선 의료단체가 29일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의료단은 인구 2천600만인 이라크의 난민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특히 심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라크에 300명 이상의 봉사원을 두고 있다.

넌시 아오세이 IMC대표는 “바그

다드의 치안이 끔찍해 질수록 많은 사람이 탈출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IMC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작년 2월 시아파 성지 사마라에서 발생한 폭탄폭발사건 이후 중동 집중되고 피난한 이라크인 55만명 중 80%가 바그다드 시민이었다. 사마라 폭발사건은 종파 간 살육전을 촉발했다.

아오세이 대표는 폭력사태가 현재와 같은 비율로 계속되면 100만명 이상이 향후 6개월 내에 바그다드의 집을 떠날 것이며 이들 대부분은 국외로 나가기보다 이라크 내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연합뉴스

## “2030년 印尼 섬 2천개 바닷물에 잠길 수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도네시아의 섬 1만 8천개 가운데 2천개가 오는 2030년께 바닷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라치맛 위토엘라 인도네시아 환경장관은 29일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이보 데 보어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 총재와 함께 가진 회견에서 온난화 전망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자카르타AP=연합뉴스



#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주영순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장임진우  
 (주)행남자기 창업회장 김준형  
 新安관광(주)회장 김용준  
 新安건설산업(주)회장 우경선  
 (주)동명전력 대표이사 임영춘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임직원 일동  
 (유)초원건설 임직원 일동  
 (주)근화건설 대표이사 김호남

가산토건(주)대표이사 조경구  
 (주)부국건설 대표이사 이상현  
 남옥건설 대표이사 이윤남  
 (주)한양회장 이정구의  
 임직원일동  
 (주)삼호임직원 일동  
 K T 목포지사 임직원 일동  
 전라남도목포교육청 임직원 일동  
 한국전력공사목포지점 임직원 일동  
 한국농촌공사영산강사업단 임직원 일동

한국음식업중앙회전남목포시지부 임직원 일동  
 (사)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지부장 천남두  
 전남목포시지부 회원 일동  
 기아자동차하당대리점 소장 최병찬  
 목포한국병원 임직원 일동  
 학교법인중앙병원 임직원 일동  
 목포기독병원 임직원 일동  
 목포전남병원 임직원 일동  
 목포그린병원 임직원 일동